

檢, 이재명 대표 추석 전 영장 가능성... 체포동의안·건강 변수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11시간 조사 ... 내일 2차 소환 조사 통보

이 대표 건강 악화 부담...정치권 '추석 의제'로 민심·총선 지형 변화 촉각

쌍방울 그룹의 대북송금 혐의와 관련, 지난 9일 수원지검에 출석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1시간 만에 제3차 뇌물 혐의 피의자 조사를 마치고 귀가했다. 2차 소환 조사가 남아있지만 정치권에 선 추석 연휴 이전에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고, 국회에서의 체포동의안 처리와 이재명 대표의 건강 문제 등 각종 변수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지난 9일 밤 9시 43분께 조사를 마치고 수원지검 청사를 나와 "예상했던 증거라고는 단 하나도 제시받지 못했다"며 검찰 수사를 비판했다. 이 대표는 "김성태 (쌍방울 그룹 전 회장)의 말이나 아무런 근거가 되지 않는 정황들로 긴 시간을 보냈다"며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이런 내용으로 범죄를 조작해보겠다는 정치 검찰에 연민을 느낀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검찰이 나머지 조사를 위해 이날 12일 2차 소환 통보를 한 것에 대해 "제가 무슨 힘이 있나. 검찰이 오르면 오고 가라면 가고 할 수밖에 없는 패자 아니겠냐"며 "오늘 조사를 다 하지 못했다"고 다시 소환하겠다고 하니 날 짜를 협의해 나가겠다"고 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7시부터 조서 열람을 시작했다. 조서 120쪽 중 40쪽 분량만 확인한 뒤 조서에 서명하지 않고 2시간 40여 분만에 열람을 중단했다. 이날 조사에 입회한 박근택 변호사는 이 대표가 검찰의 일부 질문에 대해서만 서면 진술서를 인용했으며, 대부분 질문에 구체적인 답변을 내놓았다고 밝혔다.

박 변호사는 "이 대표는 검찰에 김성태 전 회장이 상대할 사람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아주 구체적으

로 (검찰에) 설명했다"고 밝힌 뒤, 이 대표와 김 전 회장이 통화한 사실이 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전혀 근거 없다. 그 사람(김성태) 말을 믿으면 안 된다"고 답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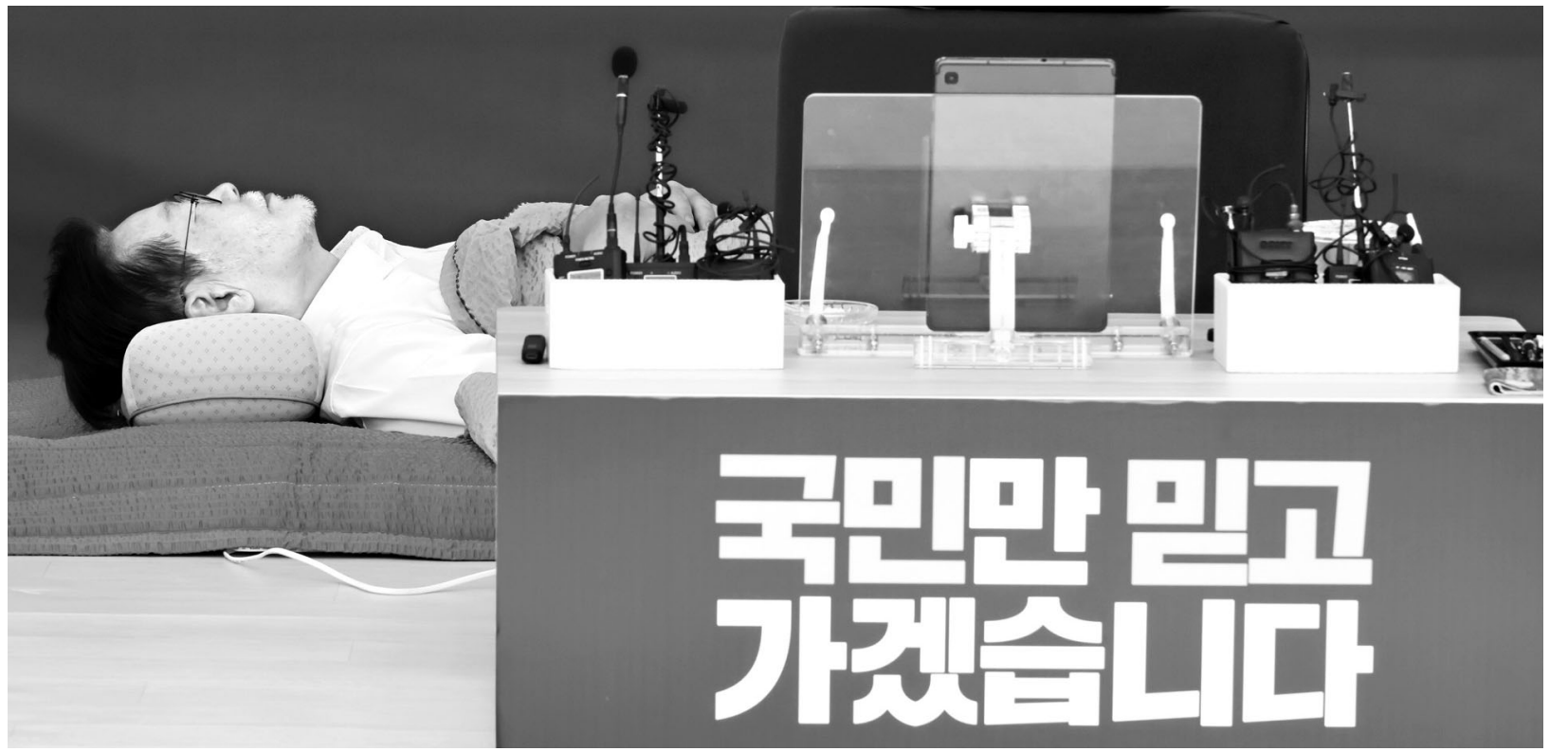
박 변호사는 스마트팜 보고 내용이 담긴 국정원 문건에 대해선 "경기도가 스마트팜 사업을 추진했던 것은 문제가 아니고 불법 여부가 문제"라며 "합법적으로 하려고 노력했다. 그리고 (북한에) 현금 지원을 하려고 마음먹은 적 없고, 현금 지원을 할 수도 없는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제3차 뇌물 혐의 피의자 조사를 받던 중 건강 문제를 호소했고, 조사는 약 8시간 만인 오후 6시 40분께 중단됐다. 이 대표 측은 "날짜가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검찰의 2차 조사에 응하겠다"고 했다.

반면, 수원지검은 이날 언론에 보낸 문자에서 "이재명 대표는 조사 내내 구체적인 진술을 거부한 채 진술서로 대응한다거나, 말꼬리 잡기 답변으로 일관하는 등 협조하지 않아 조사에 차질을 빚었다"고 비판했다. 또 "조서 열람 도중 자신의 진술이 누락되었다고 억지를 부리고, 조서에 서명날인도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퇴실했다"며 "검찰은 출석 요구한 12일에 나머지 피의자 조사를 종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치권에선 검찰이 2차 소환 조사를 마치고 대북 송금 의혹과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을 병합해 구속 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대표는 현역 국회의원이거나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통과돼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를 받게 된다.

이달 국회 본회의는 21일, 25일 두 차례 열린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단식 11일째인 10일 국회 앞 단식 농성 천막에서 자리에 누워 있다.

/연합뉴스

는 점에서 추석 연휴 이전에 체포동의안 처리를 위해서는 20일 이전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한다. 이에 따라, 20일 이전에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21일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보고되고 25일 본회의에서 표결이 진행된다.

문제는 이 대표의 건강이다. 생물학적으로 20일 이상 단식을 하면 생명마저 위태롭다는 점이 검찰에 부담이다. 또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처리될 것인지도 미지수다. 이 대표가 불체포특권 포기 선언했지만 당 대표가 목숨을 걸고 단식하고 있다는 점에서 체포동의안 처리는 그리 쉽지 않아 보인다.

실제로 민주당 내에서는 체포동의안 부결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체포동의안 처리 이전에 이 대표가 병원에 입원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 일각에선 단식의 진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이 대표가 병원에서 민주당에 체포동의안 처리를 당부할 수도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이 대표의 단식 투쟁에 출구가 없다는 점에서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통과된다면 영장실질심사는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된다. 법원이 심문 일정을 서두른다면 추석 연휴 이전에 구속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관측된다. 법원의 결정에 따라 정국은 크게 요동칠 것

으로 보인다. 이 대표의 구속 여부는 추석 모임에서 주요 의제로 자리 잡으면서 내년 총선 지형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정치권에선 검찰의 구속 영장 청구에 따른 이 대표의 거취 문제가 가져올 정치적 파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정치권 관계자는 "추석 연휴가 일주일이나 된다는 점에서 이 대표의 거취 문제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민심의 흐름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며 "여야가 각종 시나리오를 토대로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고 말했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kwangju.co.kr

장흥 금산리 '국립호국원 부지' 선정

보훈부, 497억 투입 2029년까지 2만기 규모 조성

국가보훈부는 새로 조성할 전남 국립호국원 부지로 장흥군 장흥읍 금산리 일원을 선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전남도는 지난 4월 장흥군 장흥읍과 안양면, 신안군 지도읍 등 3곳을 후보로 선정해 보훈부에 유치 제안서를 제출했으며, 보훈부는 입지타당성 조사를 거쳐 장흥군의 46만7천730㎡ 면적의 땅을 국립호국원 부지로 최종 선정했다.

평가 과정에는 건축·도시계획·산림·환경 등 분야별 외부 전문가 11명이 참여했다.

보훈부는 2029년까지 총사업비 497억원을 들여 봉안시설 2만기 규모의 전남 국립호국원을 조성한다.

2024~2025년 설계와 인허가, 토지 보상 등을 추진하고 2026년 6월 착공할 계획이며, 오는 2029년 6월 준공한 뒤 같은 해 11월 전남권 호국원을 개원할 예정이다.

현재 광주·전남에 거주 중인 호국원 안장 대상자는 2만8000여명으로 이 중 81세 이상 전남지역 참전유공자가 3000여명에 달한다.

보훈부는 "전남권 호국원이 완공되면 권역별로 국립묘지가 조성돼 이용자의 접근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전국 총 12개 지역에 국립묘지를 운영하고 있다. 국립서울현충원과 국립대전현충원을 비롯해 과산·영천·임실·이천·산청·제주 등 6곳에 호국원이 있다. 서울 강북구에 4·19민주묘지, 창원 마산회원구에 3·15민주묘지, 광주에 5·18민주묘지가 있으며 대구에 신한선열공원이 있다.

보훈부는 국가유공자의 고령화로 안장 수요가 늘어날 것에 대비해 제3의 현충원인 국립연천현충원 신규 조성과 함께 국립호국원 5개소를 확충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박지원, 해남으로 전입

내년 총선 완도·해남·진도 출마

박지원 전 국가정보위원장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완도·해남·진도 선거구 출마를 위해 해남으로 주소를 옮기고 명랑대접축제 현장과 완도읍 5일장을 돌며 본격적인 선거 행보에 나섰다.

박 전 원장은 지난 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해남읍사무소에 전입 신고! 해남군민이 된다'고 글을 올렸다. 또 '해남읍 주공 1차 18평 아파트에서 조카와 살린다', '전입금 20만원, 해남사랑 상품권 5만원, 대박'이라고도 썼다.

박 전 원장은 이어 주말까지 해남 황산 5일장, 친환경농업인 전국대회, 명랑대접축제, 완도생활체육대회, 완도읍 5일장을 돌며 지역민들과 만남을 가진 행보도 자세하게 올렸다.

박 전 원장은 자신의 SNS 말미에 '해남완도진도 발전, 확실하게 해냅니다'는 글을 올리며 비례대표가 아닌, 지역구 출마 의지를 강하게 드러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여의도 브리핑

민형배, 광주 광산구를 지역위원장 복귀

더불어민주당 민형배(광산읍) 의원이 광주 '광산구' 지역위원장으로 공식 복귀했다.

10일 광산구를 지역위원회에 따르면 전남 수안문화체육센터에서 '2024총선 승리를 위한 광산구를 지역위원회 개편·핵심당원 결의대회'를 열고 신임 민형배 위원장과 전임 송남수 위원장에 대한 사보임 절차를 마쳤다.

특히 이번 '개편·결의대회'에서 광산구를 지역위원회는 2024 총선 승리에 대한 결의를 다졌다. 또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반대 광산구를 지역위원회 결의대회'도 함께 열어 국제법적인 일본의 핵오염수 해양투기 즉각 중단을 요구했다.

민 의원은 취임사를 통해 "16개월 만에 광산구를 지역위원장에 복귀한 지금 반가움과 함께 두려운 마음이 앞선다"며 "1년 4개월 동안 윤석열 정부의 폭정을 똑똑히 보았으며, 무도한 정부여당의 횡포를 제대로 막아내고 민주주의를 지켜낼 수 있



을까에 대한 두려움이다"고 밝혔다. 이어 "극단으로 치닫고 있는 윤석열 정권의 횡포를 가만히 둘 수 없으며, 나를 위해·우리를 위해·세상을 위해 분노하고 저항해야 한다"며 "막장을 향해 달려가는 윤석열 검사정권의

횡포를 막는 가장 현명한 길은 내년 총선의 압도적 승리이며, 과반 의석은 당연한 것이고 개헌 가능 의석을 반드시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광산구를 지역위원회는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반대 결의대회'를 통해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즉각 중단 ▲윤석열 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반대 입장 즉각 표명 ▲한국 정부의 일본 정부 국제 해양법 재판소 제소 등을 요구했다. /오광록 기자 kroh@

신협이 활짝 피었습니다

든든한 금융의 힘으로
따뜻한 협동의 힘으로
당신을 평생 어부바 하겠습니다



평생 어부바
신협

광주보청기 난청센터

보청기

무료체험

직접 체험 후 결정!!

- ✓ 잡음없이 깨끗한 소리
- ✓ 웅웅~ 울리지 않는 보청기

062)362-3336
광주 동구 대인동 183-2번지 (한미쇼핑사거리)